

음식쓰레기에 관한 실태조사(I)

장 원, 김미경,** 강창민, 박영숙*

대전대 환경공학과, *배달환경연구소, **YWCA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waste (I)

Won Jang, Mikyeong Kim,** Changmin Kang, Youngsuk Park*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aejon University

*Korean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YWC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is citizen's attitude and style to the foodwaste from 10th Sept. to 30th Sept. in 1996. The research was used questionnaire method and the analysis was used p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le method by SPSS (scientific statistics). they answered that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was waste problem and the best way to settle waste problem was to reduce waste production itself. And they answered that to settle environment problems, it was most important for us to change our life style. But It was not agreed between consciousness and action (execution). Because most of the food-related waste was among household waste, it's settlement was the most importment thing than any other. Nevertheless the seperation of waste was essential to effective incineration, the seperation process was not actually conducted and only a few housewife knew the difference of incinerable and non-incinerable waste.

The recycling for the disused dry-cells and garbage is not completly. But we think that if the effective government's recycling counterplan for wastes, foodwaste or wasted dry cell, etc., is established, rates of seperation and collection was increasing. Much usuage of onetime vinyl bag for shopping was become the one of the main cause in increasing the package waste, and so it was needed to use the longlife shopping basket.

Key words : Foodwaste, Recycle, Reuse, Separate collection

요 약

서울거주 주부 8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쓰레기문제에 대한 의식 및 행태를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쓰레기문제를 꼽았으며,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생활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90.5%의 응답자가 물품구입시 환경문제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장바구니 사용 비율은 매우 낮아 환경의식과 구체적인 실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젊은 주부들일수록 또 전업주부일수록 실천 비율이 낮았다.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아,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리 수거가 필수적이거나 응답자의 29.7%만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활용이 확실히 되고 있는 종이류(97.3%), 유리병류(96.5%) 등의 품목은 분리배출 비율이 매우 높고, 재활용 여부가 명확치 않은 음식물쓰레기(68.9%), 폐전지(59.9%)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떤 품목이든 정부의 확실한 재활용 대책이 나온다면 주부들의 분리배출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가족수와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0.7%가 구입한 식품을 가게에서 주는 비닐 등의 포장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식품 구입시에 비닐 등의 포장용기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고, 같은 비닐을 반복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용어 : 음식쓰레기, 재활용, 재사용, 분리수거

1. 서 론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배출 문제가 국민 대다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매립지나 소각장 부지 선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기관과 해당 주민들의 빈번한 마찰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쓰레기처리 문제 또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쓰레기문제는 현재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발생량을 최소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적절히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안되

는 쓰레기는 되도록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반영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정쓰레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량이 높아 매립후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 시키는 주범이며, 열효율을 떨어뜨려 소각도 어려운 실정으므로 재활용 방안이 다른 어떤 폐기물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하겠다.

가정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에서부터 배출까지 각 가정의 소비행태의 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의 목적은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주부들의 전반적인 의식과 행태 등을 조사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조사기간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96년 9월 10일~9월 30일

통계분석 : 96년 10월 1일~10월 31일

2.3 분석방법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 분석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2.4 조사의 한계

조사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추출하였으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주부 전체를 정확히 대표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3. 조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 825명이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
연 령	20대	59	7.2
	30대	354	42.9
	0대	222	26.9
	50대	169	20.5
	60대 이상	21	2.5
직업의 소유	전업주부	483	58.5
	부업주부	180	21.8
	취업주부	162	19.6
가 족 수	1~2명	67	8.1
	3~4명	578	70.1
	5~6명	159	19.3
	7명 이상	21	2.5
주 거 형 태	아 파 트	382	46.3
	연립, 다세대주택	176	21.3
	단독주택	267	32.3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19	2.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9	12.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8	48.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4	27.2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1	8.6
	500만원 이상	14	1.7
	계	825	100.0

연령별 분포는 30代가 42.9%, 40代가 26.9%, 50代가 20.5%, 20代가 7.2%, 60代이상 2.5%로, 30代와 40代가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 소유별 분포를 보면, 전업주부가 58.5%,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가 21.8%, 취업주부가 19.6%였다. 가족수는 주부를 포함하여 3~4명이 70.1%를 차지하고 있고, 5~6명이 19.3%, 1~2명이 8.1%, 7명이상이 2.5%였다.

주거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거주자가 전체의 46.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32.3%,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21.3%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별 분포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8.2%로서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7.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2.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6%이고, 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각각 2.3%와 1.7%으로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5.5%를 차지했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로 살펴볼 때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3.2 일반적 환경인식도

표 2 및 표 3은 각각 피부로 느끼는 오염의 정도 및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실제로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9.8%가 매우 심각하며, 18.3%가 조금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전체의 98.1%가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39.2%가 쓰레기문제를, 다음으로는 수질오염(28.9%), 대기오염(27.3%)의 순으로 응답하여, 쓰레기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쓰레기문제가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

어 진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가 시기적으로 적당하며, 또한 그 교육이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과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 2. 실제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정도.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매우 심각하다	658	79.8
조금 심각하다	151	18.3
그저 그렇다	14	1.7
별로 심각하지 않다	2	0.2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계	825	100.0

표 3.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수질오염	239	28.9
대기오염	225	27.3
토양오염	29	3.5
쓰레기문제	323	39.2
기 타	9	1.1
계	825	100.0

표 4는 쓰레기문제 해결의 효과적 방법으로 전체의 49.8%가 쓰레기발생량의 감소화를 지적했으며, 37.6%는 재사용 및 재활용물의 증가, 12.1%는 매립, 소각 등 위생처리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 쓰레기문제의 중점적인 해결 방법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인다	411	49.8
재사용 및 재활용을 늘린다	310	37.6
매립 또는 소각 등 위생처리한다	100	12.1
기 타	4	0.5
계	825	100.0

표 5.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

항 목	응답자(명)				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무응답	
정부의 의지	160 (19.4%)	232 (28.1%)	303 (36.7%)	130 (15.8%)	825 (100%)
개인생활태도의 변화	539 (65.3%)	102 (12.4%)	146 (17.7%)	38 (4.6%)	825 (100%)
기업의 변화	119 (14.4%)	347 (42.1%)	229 (27.8%)	130 (15.7%)	825 (100%)

표 5는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의 65.3%가 개인생활태도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많은 주부들이 환경문제를 위해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 4 및 표 5의 결과으로부터 의식을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문 및 시민단체의 실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의식의 전환을 위한 정신개조교육 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3 쓰레기의 배출 형태

표 6은 주부들이 평소 물품 구입시 쓰레기 발생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중 37.3%가 많이 고려한다, 57.2%가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많은 주부들이 항상 환경문제에 대해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7에 나타난 장바구니 사용여부의 결과에서는, 포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장바구니 사용은 단지 5.8%만이 언제나 사용하고 있었고, 가끔씩 사용한다 해도 44.6%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2가지 설문 조사의 결과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장바구니 사용빈도는 주부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장바구니 사용률이 높았으나, 20대와 30대 주부의 경우 24.5%가 장바구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5.3%가 거의 사용 안한다고 응답하여 젊은층일수록 의식과 달리 실천력은 월

표 6. 물품 구입시 쓰레기 발생 문제의 고려 여부.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많이 고려한다	308	37.3
어느 정도 고려한다	472	57.2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42	5.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3	0.4
계	825	100.0

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주부들의 장바구니 사용이 낮은 이유로서는 장노년층에 비해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또 표 8의 직업별 장바구니 사용률 비교 결과, 부업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교하여 장바구니 사용률이 높아, 실리적이고 합리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 1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58.5%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장바구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전업주부 및 젊은주부에 대한 집중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9는 가정 발생 쓰레기의 품목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42.7%가 음식물쓰레기를, 21.7%가 일회용품을, 17.0%가 포장지라고 응답하여, 음식쓰레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음식물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표 10은 소각처리시 가용성과 불용성쓰레기의 분리가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양자에 대한 식별능력을 조사한 것이다. 이중 응답자의 29.7%만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정

표 7. 연령별 장바구니 사용 여부.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언제나 사용한다	3 (5.1%)	17 (4.8%)	10 (4.5%)	16 (9.5%)	2 (9.5%)	48 (5.8%)
가끔씩 사용한다	19 (32.2%)	127 (35.9%)	125 (56.3%)	84 (49.7%)	13 (61.9%)	368 (44.6%)
거의 사용안한다	24 (40.7%)	122 (34.5%)	69 (31.1%)	54 (31.9%)	4 (19.0%)	273 (33.1%)
사용해본 적이 없다	13 (22.0%)	88 (24.8%)	18 (8.1%)	15 (8.9%)	2 (9.5%)	136 (16.5%)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8. 취업별 장바구니 사용 여부.

항 목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계
언제나 사용한다	20 (4.1%)	16 (8.9%)	12 (7.4%)	48 (5.8%)
가끔씩 사용한다	212 (43.9%)	85 (47.2%)	73 (45.1%)	370 (44.6%)
거의 사용안한다	167 (34.6%)	50 (27.8%)	55 (34.0%)	272 (33.1%)
사용해본 적이 없다	84 (17.4%)	29 (16.1%)	22 (13.6%)	135 (16.5%)
계	483 (100%)	180 (100%)	162 (100%)	825 (100%)

표 9. 가정쓰레기의 품목별 발생율.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일회용상품쓰레기	179	21.7
음식물쓰레기	352	42.7
종이류	42	5.1
포장쓰레기	140	17.0
기타 생활쓰레기	112	13.6
계	825	100.0

표 10.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의 구분.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245	29.7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562	68.1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18	2.2
계	825	100.0

확히 구분할 수 있고, 68.1%가 어느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정확한 지침 마련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가능품목의 분리배출은 매립 또는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

요한 절차다. 표 11은 각 가정의 재활용가능품의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74.2%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분리배출한다고 응답하였고, 23.0%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중 분리배출하기 쉬운 것만 한나라고 응답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주요 폐기물의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분리배출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폐기물은 종이류(97.3%), 유리병류(96.4%), 플라스틱류(90.8%) 등으로 90% 이상의 높은 분리도를 나타내었고, 음식물(68.9%), 건전지(59.9%) 등은 상대적으로 분리도가 낮았다. 표 12의 결과로부터 보면, 현재 재활용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품목은 분리배출율이 매우 높고, 반면 재활용 여부가 명확치 않은 품목은 분리배출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확실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된다면 주부들의 분리배출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은 가정에서 월간 배출되는 쓰레기발생량으로 응답자의 40.0%가 20l 종량제봉투로

표 11.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항 목	응답자 (명)	구성비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분리배출한다	612	74.2
재활용이 가능한 것중 분리배출하기 쉬운 것만 한다	190	23.0
가끔씩 분리배출한다	21	2.6
분리배출을 전혀 안한다	2	0.2
계	825	100.0

표 12. 폐기물의 분리배출 비율.

항 목	응답자 (명)	구성비 (%)
종이류	803	97.3
음식물	569	68.9
유리병류	795	96.4
건전지	494	59.9
철, 알루미늄캔류	675	81.8
스티로폼	420	50.9
플라스틱류	749	90.8
비닐류	291	35.3
의류	613	74.3
기타	18	2.2

표 13. 쓰레기의 월 발생량 (단위: 20l 종량제 봉투).

봉투수 (개)	응답자 (명)	구성비 (%)
1~4	330	40.0
5~8	267	32.4
9~12	153	18.5
13 이상	75	9.1
계	825	100.0

1~4개/월, 32.4%가 5~8개/월, 18.5%가 9~12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월평균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20l 종량제봉투 6.4개 정도로 약 130l에 상당했다.

표 14는 가족수와 쓰레기의 배출량을 비교한 것으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쓰레기의 배출량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가족수와 쓰레기 배출량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족수별 쓰레기의 월발생량 (단위: 20l 종량제봉투).

가족수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계
1~4개	42 (62.7%)	223 (38.6%)	60 (37.7%)	5 (23.8%)	330 (40.0%)
5~8개	15 (22.4%)	197 (34.1%)	47 (29.6%)	8 (38.1%)	267 (32.4%)
9~12개	6 (8.9%)	106 (18.3%)	39 (24.5%)	2 (9.5%)	153 (18.5%)
13개 이상	4 (6.0%)	52 (9.0%)	13 (8.2%)	6 (28.6%)	75 (9.1%)
계	67 (100%)	578 (100%)	159 (100%)	21 (100%)	825 (100%)

3.4 식품 구입의 행태

종량제 실시 이후 다른 쓰레기의 발생량은 많이 줄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줄지 않아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필요량의 정확한 예측 및 계획적 구매로 필요없는 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5 및 표 16은 식품의 계획적 구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식품구입전 냉장고의 잔고 확인 여부를 연령 및 직업에 따라 문의한 결과이다. 연령별 잔고확인 여부는 5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잔고확인 여부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평균 80.7%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93년도 조사결과(강성진, 1993)인 75.2%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주부들의 식품구매 행태가 조금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별로는 부업주부가 88.3%로 전업주부의 78.9% 및 취업주부의 77.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가장 계획성있는 구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냉장고의 대형화, 대규모 유통점의 묶음

표 15. 연령별 식품 구입전 냉장고의 잔고 확인 여부.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그렇다	46 (78.0%)	283 (79.9%)	185 (83.3%)	133 (78.7%)	19 (90.5%)	666 (80.7%)
아니다	13 (22.0%)	71 (20.1%)	37 (16.7%)	36 (21.3%)	2 (9.5%)	159 (19.3%)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표 16. 취업별 식품 구입전 냉장고의 잔고 확인 여부.

항 목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계
그렇다	381 (78.9%)	159 (88.3%)	126 (77.8%)	666 (80.7%)
아니다	102 (21.1%)	21 (11.7%)	36 (22.2%)	159 (19.3%)
계	483 (100%)	180 (100%)	162 (100%)	825 (100%)

표 17. 연령별 식품을 많이 샀거나 오래 보관하다가 그대로 버린 경험.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자주 있다	10 (16.9%)	26 (7.3%)	9 (4.1%)	10 (5.9%)	-	55 (6.7%)
가끔 있다	38 (64.4%)	247 (69.8%)	143 (64.4%)	102 (60.4%)	10 (47.6%)	540 (65.5%)
거의 없다	11 (18.6%)	68 (19.2%)	61 (27.5%)	47 (27.8%)	7 (33.3%)	194 (23.5%)
전혀 없다	-	13 (3.7%)	9 (4.1%)	10 (5.9%)	4 (19.0%)	36 (4.4%)
계	59 (100%)	354 (100%)	222 (100%)	169 (100%)	21 (100%)	825 (100%)

판매 등으로 주부들이 한번에 구입하는 식품의 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표 17은 식품을 많이 샀거나 오래 보관하다가 그대로 버린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72.2%가 가끔 있다 또는 자주 있다라고 응답하여, 아직 계획적 구매와 합리적 식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령에 따른 비율로는 연령이 낮은 젊은 주부일수록 그대로 버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종량제 실시 이전인 93년도의 조사 결과(강성진, 1993) 보다 조금 낮아진 것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주부들의 식품 구매행태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정확한 필요량의 예측 및 계획적 구매를 하려는 주부의 노력과 식품 판매 단위의 다양화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

표 18. 야채의 구매 양식.

항 목	응답자(명)	구성비(%)
주로 다듬어진 것을 구입한다	190	23.0
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구입하여 집에서 직접 다듬는다	635	77.0
계	825	100.0

겠다.

표 18은 가정발생 음식쓰레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야채의 양식에 대한 설문 결과다. 응답자의 77.0%가 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구입하여 집에서 직접 다듬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음식물쓰레기 중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장래 농산물 산지에서의 1차 가공 후 도시의 시장에 반입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행정 및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되어야 하고, 효과

표 19. 식품의 구매 양식.

항 목	응답자 (명)	구성비 (%)
일정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구입한다	136	16.5
주로 저울에 달아서 파는 것을 필요한만큼 구입하되 가게에서 주는 비닐 등의 포장용기에 담아서 가져온다	583	70.7
주로 저울에 달아서 파는 것을 필요한만큼 구입하되 포장용기 없이 본인의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온다	97	11.8
기 타	9	1.1
계	825	100.0

적인 시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동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 19는 식품의 구매양식에 따른 결과로서 주부들은 식품 구입시 일정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기(16.5%)보다는 필요한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것(82.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입한 식품의 운반은 비닐 등의 포장용기에 담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70.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경우는 11.8%에 불과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저울에 달아서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반면 비닐 등 포장용 쓰레기의 발생요인이 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4. 결 론

쓰레기 문제는 현재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발생에서부터 배출까지 각 가정의 소비행태 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경인식; 응답자의 79.8%가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가장 심각한 환

경문제로 쓰레기문제를 꼽았으며,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응답자의 65.3%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보다도 개인 생활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쓰레기의 배출 행태; 90.5%의 응답자가 물품구입시 쓰레기발생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바구니 사용율은 매우 낮아 의식과 실천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젊은 주부일수록 또 전업주부일수록 실천 비율이 낮았다. 가정쓰레기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었다.

3) 분리배출; 응답자의 29.7%만이 가연성 및 불연성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정확한 지침 마련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되었다. 음식물쓰레기(68.9%), 폐전지(59.9%)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의 비율 낮게 나타났으나 확실한 재활용 대책이 나온다면 분리배출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계획구매; 식품 구입전 냉장고의 잔고 확인 비율은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약간 높아졌고, 과다구매 혹은 보관중 버린 경험은 약간 낮아져, 식품 구매 행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5) 식품의 구매형태; 82.5%의 응답자가 포장된 것보다 필요량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며, 70.7%가 가게에서 주는 비닐 등의 포장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량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비닐 등의 포장용기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1993), 가정음식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4), 음식쓰레기 감량화 규제에 관한 연구.
- 환경부(1997),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및 기술동향과 감량화·자원화실천사례.
- 한국자원재생공사(1994), 주요 국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